

“두렵지 않아,

더 열심히 더 재미있게 만들 테니까”

글 | 서선연(보림출판사 편집부)

오랜만에 서점에 왔다. ‘휴! 또 책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왔네.’ 새로 나온 책들을 한아름 싸들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곳에 자리를 잡았다. 엄마 등에 업혀 온 갓난아기부터 무거운 기저귀를 차고 뒤통 뒤통 걸어가는 아이, 죽 늘어선 의자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며 슈퍼맨 놀이를 하는 아이, 주위에서 누가 떠드는지 상관없이 만화책 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초등학생까지... 그런데 그때 내 레이더에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가 책장을 넘기며 아이에게 열심히 책을 읽어 주고 있는데, “엄마, 나는 다 읽었는데 아직 솔이가 덜 읽었대” 하면서 책장을 넘기는 엄마를 가로막는 게 아닌가! 분명 아이 옆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러자 아이 엄마도 “그래? 솔이가 아직 덜 읽었다고? 그럼 기다려 줘야겠네” 하면서 아이가 가리킨 텅 빈 자리를 향해 대답을 하였다. 가방에서 얼른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아이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열심히 적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오늘 낮에 서점에서 본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이렇게 쌓아놓은 생각들이 언젠가는 책으로 만들어질 날을 기대하며.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서점에 가러

고 한다. 어떤 책이 새로 나왔는지 궁금하기도 하려니와 내가 만드는 책의 소비자들과 만나기 위함이다. 때로는 새로 나올 책의 교정지를 가지고 가서 어린이들에게 책의 모양새나 내용, 이미지를 보여 주기도 하고, 실제로 어린이들에게 책을 사 주는 부모들에게도 읽어 주고 조심스럽게 반응을 살피기도 한다.

어린이책은 다른 책과는 달리, 책을 만드는 사람은 어른이요, 책을 보는 대상은 어린이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내 머릿속에 있는 어린이상, 혹은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어린이상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책을 만드는 일은 어린이들의 삶을 바로 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듯이 어린이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어린이의 변화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열심히 읽어 낸 변화의 대상, 즉 어린이에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 자칫 ‘어린이를 위한 책’이라는 대명제를 두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강박관념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어린이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도움을 줄까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고스란히 자신들이 만든 책 속에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어린이들도 책을 읽다가 “홍, 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군” 하고 의도를 단박에 알아차리고는 책장을 덮게 된다. 알맞은 대상 파악과 알맞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책을 만드는 일은 작가, 화가, 편집자, 디자이너 등이 함께하는 작업이다. 물론 논픽션과 달리 픽션의 경우에는 작가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 각 분야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책을 만들자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다. 그러므로 왕성한 호기심을 가지고 저작가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저 화가는 무엇을 표현해 내고 싶은지 등을 알아야 한다. 결국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작가, 화가, 편집자, 디자이너 등등 어린이책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관을 고스란히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드러내게 된다.

그렇게 의기투합(?)하여 책을 만들고 있는데, 난데없이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작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몽땅 쏟아 붓듯 한 권의 책에 넣으려고 한다. 화가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



휘하기 위하여 좀더 많은 그림을 책 속에 넣기를 원한다. 디자이너는 이렇게 작은 판형의 책에 그렇게 많은 정보와 그림들을 넣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럴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즉 이 책의 기획의도는 무엇인지, 어떤 책을 만들려고 했는지, 왜 만들려고 했는지, 그리고 어떤 대상 연령을 주요 독자로 삼았는지 등등을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곳에 반듯이 해답이 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 기획방향을 확실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 막연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책을 만들기 시작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나는 책을 만들 때 즐겁고 행복하다.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 많은 작가와 화가를 만나고 도서관에 가서 필요한 자료를 찾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는 등 열심히 다리품 손품을 팔아야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이렇게 여러 품을 팔아 눈에 보이는 생산물을 내는 일은 많지 않은 듯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은 드디어 서점에서 독자들과의 평가를 받게 된다. 내가 애정을 쏟은 만큼, 열의를 가지고 일한 만큼,

실사 독자들과의 평가(주로 얼마만큼 팔렸나 하는 숫자가 될 것이다)나 비평가들의 평가가 나쁘더라도 두렵지 않다. 다음번에는 이번에 얻은 것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즐겁게 책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을 만들다 보면 나에게서 무언가가 쌓이는 듯하지만 또 금방 고갈되기도 하고,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욕구가 생긴다. 그러면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특유의 잡식성으로 다시 자신의 정열을 쏟을 대상을 탐구하게 된다.

책을 만드는 일은 같지만, 매번 새로운 작가와 화가, 디자이너를 만나게 되고 만드는 과정과 요소가 다르다는 것이 또한 나를 지치지 않게 하는 요소인 듯하다. 산을 오르는 일을 예로 들어 보자. 저 언덕만 넘으

면 곧 정상에 보일 듯하였지만 정상에 올라가니 또 다른 언덕이 보이는 것,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으라차차 힘을 내어 새로운 언덕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일과 같다. 비슷하게 생긴 언덕이라도 다 다르다. 자그마한 돌맹이가 많은 언덕이 있는가 하면, 그 누구도 밟아보지 못했을 듯한 곳도 있다. 이번엔 개나리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는 봄 산이었다면 다음번에는 단풍이 온 산을 뒤덮는 가을 산일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리는 '바위산'일 수도. 그렇지만 또 그 바위산을 오르는 재미는 평탄하게 오르는 산과는 분명 다르리라. 나는 지금 다시 자그마한 공책을 들고,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얼음산에 가기 위해 부지런히 짐을 꾸린다. **한문**

